

#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A Typology of Dual-Income Family Work-Life By Time Allocation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박 사 김 주 희\*\*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명예교수 이 기 영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

*Ph.D.* Kim, Joo Hee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

*Emeritus Professor* Lee, Ki Yo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Dual-income family is becoming more common in today's society. This study will look at how dual-income households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Specifically, it will study how the families allocate time for work, where they use labor power, and for domestic work and leisure, where they recharge labor power. The data source for this study was the 2009 Korean Time Use Survey.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The study confirmed that many husbands and wives they still spend much time working. There are differences to spend in restoring labor power; many husbands spend leisure time and many wives spend household labor. Generally in a typical dual-income household, the husband works and enjoys leisure and the wife focuses on working. It was found that the husband and wife in a dual-income family feel time deficient is due to long working hours.

\* 본 논문은 김주희의 2012년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교신전자: 김주희(heeya214@snu.ac.kr)

Key Words : dual-income family(맞벌이 부부), time allocation(시간배분), typology of Work-Life(일-생활 유형화), work-life balance(일-생활 균형), role balance husband and wife(부부 역할균형)

## I. 서론

현재 맞벌이 가정은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1178만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42.9%로 홀벌이 가구 42.2%를 넘어섰다(통계청, 2014).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에 직면하여 가정의 공동화 현상, 돌봄기능의 취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송혜림, 2012), 가정 내 역할변화에 따른 시간배분의 차원에서 시간부족, 시간갈등, 일-가족의 양립, 일-생활의 균형 등의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고, 이는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균형의 문제도 부각시키고 있다. 즉, 맞벌이 가정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적인 영역에서 노동력을 소비하는 일시간과 사적인 영역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사노동 시간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사용의 요구로 또 다른 노동력 재생산시간인 여가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은 순환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 노동력의 소비는 사적인 영역에서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을 거쳐 다시 노동력의 소비로 이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소비하는 일에 많은 시간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의 균형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다중역할이 요구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의 균형은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근대사회에서 탈근대사회로의 이동은 노동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확산시켰고 사람들에게 노동으로부터 탈피하여 창조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하게 하였으며, 이는 삶을 구성하는 생활영역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켰다. 현재 노동의 의미는 생계수단을 위한 도구의 의미를 넘어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중요한 장으로 그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으며, 여기는 노동을 하고 난 후에 취할 수 있는 잔여적인 의미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추구해야 하는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개인은 취업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가정과 여가에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적 차원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노동시간(1,773시간) 보다 390시간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OECD, 2012). 이와 같이 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일 이외의 다른 생활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가시간 당 유급근로시간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

1) 2005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현재의 시간사용 방식을 바꾼다면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59.9%, 여가활동에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났다(성균관대학교, 2005). 이는 일 중심의 가치가 가족 및 여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균형 있는 일과 생활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리나라는 1.0으로)<sup>2)</sup>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 시간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이처럼 인식과 실제의 불일치가 경험되는 가운데, 공적인 영역에서 노동력을 소비하는 노동 시간과 사적인 영역에서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균형은 일정한 양이나 질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며, 이는 삶의 질과 관련되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자원이므로, 개별 일정과 시간표는 개인이 사회를 경험하는 방식이자 그 결과물이다(Elias, 1992) 즉,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따라 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사회의 구성원이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따라 그 가정 또는 사회의 모습이 변화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은 각 가정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생활영역에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은 상이하며, 이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일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들이 노동력을 소비하는 일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생활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의 다양한 삶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 생활영역시간 또는 남편과 부인의 시간사용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즉, 맞벌이 부부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생활시간 연구<sup>3)</sup>는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을 분석한 연구(이종희·이연숙, 2002; 조희금·이기영·이연숙·김외숙, 2000),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및 부인의 이중부담을 강조하는 연구(채로·이기영, 2004; 손문금, 2005a; 허수연, 2008, 유계숙, 2010)<sup>4)</sup>,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이승미, 1996; 한영선·윤소영, 2009; 손문금, 2010)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특정 생활시간만을 다루고 있어 각 생활시간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며 또한 일과 가정생활의 상호관계만을 강조하여 여가를 포함한 생활과 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계가 있으며, 부부간 시간배분의 상호관계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라는 객관적 도구를 사용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노동력을 소비하는 취업노동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사노동과 여가에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배분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의 생활을 분석하는 것은 보편적 가족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들의 일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알려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제도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제한된 정책에서 나아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확장된

2) 2006년 기준 OECD 18개 회원국의 여가시간 당 유급근로시간 비율을 분석한 결과 OECD 평균은 0.8이며, 우리나라는 1.0으로 멕시코(1.3), 일본(1.2)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0.8로 OECD 평균수준이며, 영국(0.7), 이탈리아(0.7), 독일(0.6), 핀란드(0.6)와 같은 유럽국가들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1.0을 넘으면 유급근로시간이 여가시간보다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부부를 대상으로 시간사용을 분석(이기영, 이승미, 1994; 허경옥, 1997; 이연숙 외, 2002, 한지수, 2003)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연구의 대상이 맞벌이 부부임으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을 살펴본다.

4) 맞벌이 여성 또는 기혼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한경미, 1991; 조희금, 1993; 손문금, 2003; 성지미, 2006; 손문금, 2005a; 김진숙, 2005) 여성의 이중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의미의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생활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일은 인간이 노동력을 소비하는 것을 지칭하며, 생활은 일, 가사, 여가 등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은 생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생활을 개인 및 가족원의 의생활·식생활·주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재화관리와 가족의 건강, 자녀의 교육 등 가족원의 상호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것(이기영·조영희·송혜림·이승미, 1998)을 의미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과 생활은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과 생활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과 생활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사회에서 각 생활영역간의 상호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근대 이전에 가정은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였으며, 노동과 여가는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도 분리되지 않았다. 생계유지를 위한 일과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가사노동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이에 일터와 가정의 구분도 없었으며, 노동과 여가도 미분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서의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는 산업사회가 되자, 근대적 시공간이 출현해 그것이 노동과 집, 노동과 개인적 삶, 노동과 문화 등으로 조직적으로 서로 분리되었고,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자유시간’이라는 근대적 구분(크리시스, 2007)이 생겨났다. 이에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가정과 일터도 분리되었다. 즉,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던 가정은 가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적

인 영역이 되고 노동력을 소비하는 사회는 공적인 영역이 되었다. 더불어 소득을 벌어들이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장노동은 노동이며,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은 노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산업사회에서는 1인 생계부양자 체제로서 남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를 책임지는 형태를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남성에게는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고, 가정의 담당자였던 여성은 가정관리와 돌봄노동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더불어 남녀 각각에게 공적 영역에서 일과 사적 영역에서 가사노동에의 시간사용 요구가 높아 상대적으로 여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또한 산업사회에서 여가는 노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가가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도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사회의 구조는 탈근대사회로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은 다양화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는 느슨해지고, 노동 중심적 가치는 여가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과거의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은 2인 생계부양자 모델로 전환되고 가정 내 역할변화에 따른 시간배분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한 생활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시간을 배분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에의 시간배분이 요구되고 있다. 즉, 맞벌이 가정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적인 영역에서 노동력을 소비하는 일시간과 사적인 영역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사노동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산업사회 이전에는 노동과 여가가 미분화된 상태에 있었으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노동과 여가가 분화되었으며, 탈근대사회로 진행되면서 여가의 의미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5)</sup>. 여가는 일을 위한 휴식으로서의 의미

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생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노동이 여가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오늘날에 좋은 노동의 개념은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는 소위 ‘생산적’ 노동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와 육아 같은 재생산 노동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을 통해 소외되고 있는 개인의 여가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 전체를 조화롭게 양립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김미경, 200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의 균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은 삶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영철·이명신·김은정, 2009; 서중수, 2010). 또한 일정한 양이나 질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이기영·김외숙, 2002). 즉, 삶에 대해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자원이란 일과 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자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자원은 하루 24시간이라는 한정적인 특성을 가진 자원으로서 다중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잘 배분될 때 삶에 만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생활의 균형에 주목할 때, 시간 사용은 핵심적인 기제이며 접근방식이 된다.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배분되는 시간의 양을 중심으로 일-생활의 균형 상태를 측정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간량에서의 균등함이 확보될 때

균형이나 양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직업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건강과 웰빙의 삶,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생활의 균형이란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이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역할의 수행, 삶의 제반 영역에서의 주체적인 경험 등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송혜림, 2012).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시간배분의 차원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다중역할이 요구되는 일상과 하루 24시간으로 제한된 시간자원의 특징으로 인해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 2. 시간배분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가족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시간배분론과 젠더효과이론을 들 수 있다. 이 2가지 이론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신고전경제학에 기반을 둔 시간배분론에서는 가계단위의 효용성을 강조한 반면 젠더효과이론에서는 사회의 기대에 따른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각각의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Becker(1965)의 시간배분론을 살펴보면, 신고전경제학에 기반을 둔 베커는 가정을 생산단위로 간주하면서 노동공급의 결정을 시간배분으로 설명한다. 그는 가정을 시간과 시장재화를 투입요소로 하여 가족구성원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상품을 생산하는 단위로 보았다. 그리고 시간의 가치를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사용 또는 배분되어야 하는 자원으로 보았다.

이에 가계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시장활동과

5)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동과 여가의 변화를 설명한 Gershuny(2000)에 의하면 근대 이전 사회와 근대사회에서는 노동시간은 길었으며, 이 때 여가는 엘리트층에서 향유하는 것이었다. 탈근대사회가 되면서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여가는 모든 계층에서 누리는 것으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한다.

가계활동의 상대적 효용성에 입각하여 그들의 시간을 배분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시장노동시간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화폐소득도 감소하게 되므로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은 시장노동에 참가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잠재소득이라고 보았다. 이에 각 가정의 개 개인은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각 가정에서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 내에서 부부간의 비교우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남성들이 시장노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남녀 간의 비교우위에 따라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한 결과라고 보았다.

그에 반해, 젠더효과를 강조한 이론은 각 가정 내에서 개인의 시간배분은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젠더역할의 사회화에 의한 것이며, 그 자체가 젠더수행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Bittman et al., 2003; 김수정·김은지, 2007 재인용). 즉, 남녀가 동일한 시간의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요구나 기대에 따라 시간을 배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은 남성성을 지닌 취업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여성은 여성성을 지닌 무급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무급노동시간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성별에 기초한 역할기대에 의해 더 잘 설명되며(박민자, 1992; 조혜정, 1998; Bittman, England, Folbre, Sayer & Matheson, 2003), 여성의 자원이 아무리 증가한다 할지라도 무급노동은 여전히 여성화된 채로 남고, 남성들은 여전히 가족일과 무관하게 남는다는 것이다(장혜경·김영란, 1998; 손문금, 2005b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들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맞벌이 부부들의 시간배

분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본 연구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 3.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시간배분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직업관련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미취학자녀 유무, 성역할태도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직업관련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연령은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소이·최윤지(2002)의 연구에서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유급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사노동시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수정 외(2007)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경우만 연령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경옥(1997)의 연구에서 남편의 육아노동시간비율은 남편 연령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젊은 아버지의 경우 더 많은 시간비율을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진옥(2005)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총 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 모두 연령만이 유의미하였으며, 연령의 경우 34세 이하 집단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취학 아이 유무를 통제했을 때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미취학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영선 외(2009)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수준과 시간배분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 시간배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성용(2008)은 부부의 공동 노동시간을

측정한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이 모두 낮을수록 보다 긴 공동 주당 노동시간으로 인해 부부의 시간 배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성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분석한 성지미(2006)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장노동시간은 적고 여가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정 외(2007)에서 중졸이하집단에 비해 다른 집단의 총 노동시간은 적은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승미(1996)에 의하면 부인의 교육수준이 일요일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선 외(2009)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남편의 여가시간은 주말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말 남편의 여가시간은 고졸이하의 집단보다 전문대졸이상 집단의 여가시간이 길었다.

자녀관련 변수는 미취학자녀의 여부 또는 막내자녀의 연령과 같은 변수로 측정되고 있다. 우선 막내자녀의 연령과 시간배분 관계를 살펴보면 막내자녀의 연령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며(김효정, 2001), 남성과 여성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문금, 2005b).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더 증가하며(손문금, 2010; 이현아·이승미, 2011), 미취학 자녀가 있는 부부의 공동 주당/일일 노동시간이 미취학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으며(유성용, 2008) 어린 자녀유무가 여성과 남성의 육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소이 외, 2002). 이와는 반대로 김수정 외(2007)의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의 유무가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돌봄노동이 발생하게 되므로(Craig and Sawrikar, 2009; Drago, 2009)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역할태도는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배분시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다. 성역할태도가 가구내의 가사노동분담정도를 결정(조성은·문숙재, 1998; 이명신, 2001; 송혜림, 200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은기수(2009)의 연구에서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 태도에서 비전통적으로 바뀌어 가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증가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혜림, 1988; 이기영·이승미 1994). 반면 채로, 이기영(2004)과 김진욱(2008)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시간배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reenstein(1996)은 여성이 취업노동과 무급노동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남편과 가사일을 분담하게 되고 남성은 평등의식이 강할수록 더 많은 가사일을 하고 아동을 돌본다고 하여 남녀의 무급노동 분담에 대한 차이를 강조하였다. 강학중·유계숙(2005)의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직업관련 특징을 들 수 있는데, 유소이·최윤지(2002)의 연구에 의하면 유급노동 종사 여부가 성인 남녀의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근로소득이 시간배분을 결정하며(한경미, 1991; 허경옥, 1997; 성지미, 2006), 자신의 소득기여가 남성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을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외, 2007).

또한 직업이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경미, 1991; Voydanoff, 1988; 한영선 외, 2009). 우선 부인의 경우 평일에 기능

사무직의 직업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휴일에 관리전문직 부인이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미, 1991). 남편을 살펴보면, Voydanoff(1988)의 연구에서 남편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영선 외(2009)의 연구에서 남편의 주말 여가시간만 직업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단순노무직보다 기능조립직이, 기능조립직보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편의 주말 여가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시간부족감과 생활시간만족도는 시간배분에 따른 결과변수로, 각 생활영역에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정도와 생활시간에 만족하는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시간부족감을 살펴보면, 취업부인을 대상으로 한 한경미(1991)의 연구에서는 취업부인은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시간압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여가와 개인유지시간이 적을수록 시간압박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를 분석한 유소이 외(2002)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 시간부족정도가 심할수록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부족을 느끼는 정도가 심할수록,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경우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의 시간사용유형을 분석한 한지수(2003)의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이 긴 유형은 시간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여가시간이나 개인유지시간이 긴 유형은 시간에 대한 압박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만족도와 시간배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간배분에 따른 자신의 생활시간만족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생활시간만족도를 사용하기보다는 생활만족도를 사용하고

있다(한경미, 1995; Voydanoff, 1988; 조희금, 1999). 한경미(1995)와 Voydanoff(1988)의 연구에서 가사노동시간은 취업부인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희금(1999)의 연구에서 주당 수입노동시간과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노동부담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남편의 가사분담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지수(2003)의 연구에서는 취업부인의 경우 수면시간이 많은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노동을 많이 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자녀여부, 성역할태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직업관련 특징이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시간배분에 따라 시간부족감과 생활시간만족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징, 직업관련 특징, 시간부족감과 생활시간만족도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다. 우선 분석자료를 추출한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일-생활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B그룹(일, 월), C그룹



(화, 수), D그룹(목, 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sup>6)</sup>. 조사대상자가 모두 2일씩 조사되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월, 화, 목에 기입한 조사대상자만을 추출하여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연구대상임으로 취업노동시간이 있는 평일을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맞벌이로 응답한 대상자 중 남편과 부인 모두 조사된 경우만을 추출하였으며, 분석에서 배우자의 변수의 특징도 살펴보기 위해 가구단위로 배우자를 매칭시켰다. 주업시간이 ‘0’분인 응답자와 조사일에 ‘일’시간이 ‘0’분인 응답자는 제외되었다. ‘0분’인 응답자는 맞벌이일지라도 조사일에 휴무일이었거나 휴가기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노동시간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조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을 군집변수로 하여 일-생활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카이제곱검증,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일-생활시간을 구성하기 위하여 2009년 생활시간조사의 소분류를 재조정하였다.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의 균형의 관점에서 일-생활 시간을 구성하고자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대로, 공적인 영역에서 노동력을 소비하는 취업노동시간, 사적인 영역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 가. 취업노동시간

본 연구에서 취업노동시간은 주업, 부업,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수, 집에 가져와서 일하는 시간, 그 외 일 관련행동, 무급가족종사자 일(농림어업제외)로 구성되어 있다.<sup>7)</sup>

#### 나.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은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항목 중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품구입도 가정관리의 한 행동으로 포함되었다. 우선 가정관리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가정경영, 그 외 집 관리, 기타 가사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품구입은 일관련물품구입, 학습관련물품구입, 가정관리관련물품구입, 여가관련물품구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보살피기는 미취학자녀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보살피기의 가족보살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정관리시간, 물품구입시간,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합한 총시간이 가사노동시간이다.

#### 다. 여가시간

여가시간은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항목 중 교제 및 여가활동과 참여 및 봉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는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기타 여가관련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및 봉사활동에는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 돕기, 참여활동, 자원봉사로 구성되어 있다.

6)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A그룹(금, 토), B그룹(일, 월), C그룹(화, 수), D그룹(목, 금), 그룹E(토, 일) 5 그룹을 조사하였다. A그룹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기입한 그룹으로 금요일의 경우 휴일과 연계되는 요일특성으로 인해 A그룹은 추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E그룹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기입한 그룹으로 모두 평일이 아닌 요일에 조사된 그룹으로 본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지 않았다.

7)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은 연구대상에서 농촌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취업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구직활동과 기타 일 관련 행동은 노동력을 소비하는 직접적인 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표 1〉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일반적 특성

| 변수       | 구분           | (단위:빈도(%)) |           |
|----------|--------------|------------|-----------|
|          |              | 남편(1123)   | 부인(1123)  |
| 연령       | 20-29세       | 18(1.6)    | 53(4.7)   |
|          | 30-39세       | 266(23.7)  | 364(32.4) |
|          | 40-49세       | 539(48.0)  | 533(47.5) |
|          | 50-59세       | 300(26.7)  | 173(15.4) |
| 교육수준     | 중졸           | 138(12.3)  | 174(15.5) |
|          | 고졸           | 519(46.2)  | 615(54.8) |
|          | 대졸           | 412(36.7)  | 310(27.6) |
|          | 대학원          | 54(4.8)    | 24(2.1)   |
| 미취학자녀 유무 | 있음           | 203(18.1)  | 203(18.1) |
|          | 없음           | 920(81.9)  | 920(81.9) |
| 성역할 태도   | 전통적          | 460(41.0)  | 282(25.1) |
|          | 근대적          | 663(59.0)  | 841(74.9) |
| 직업       | 관리직          | 86(7.7)    | 11(1.0)   |
|          | 전문직          | 160(14.2)  | 212(18.9) |
|          | 사무직          | 198(17.6)  | 203(18.1) |
|          | 서비스·판매직      | 207(18.4)  | 415(37.0) |
|          | 기능직          | 381(33.9)  | 112(10.0) |
|          | 단순노무직/기타     | 91(8.1)    | 170(15.1) |
| 직장에서의지위  | 임금근로자        | 739(65.8)  | 762(67.9) |
|          | 고용주          | 113(10.1)  | 48(4.3)   |
|          | 자영자          | 264(23.5)  | 158(14.1) |
|          | 무급가족종사자      | 7(0.6)     | 155(13.8) |
| 개인 월평균소득 | 100만원 미만     | 73(6.5)    | 549(48.9) |
|          | 100~200만원 미만 | 363(32.3)  | 378(33.7) |
|          | 200~300만원 미만 | 387(34.5)  | 115(10.2) |
|          | 300~400만원 이상 | 177(15.8)  | 55(4.9)   |
|          | 400만원이상      | 123(11.0)  | 26(2.3)   |
| 주휴제도     | 1주에 하루       | 472(42.0)  | 460(41.0) |
|          | 1주에 이틀       | 343(30.5)  | 360(32.1) |
|          | 2주에 하루       | 44(3.9)    | 43(3.8)   |
|          | 수시로 쉼/기타     | 264(23.5)  | 260(23.2) |
| 시간 부족감   | 예, 항상        | 400(35.6)  | 492(43.8) |
|          | 예, 가끔        | 544(48.4)  | 530(47.2) |
|          | 아니오, 거의      | 155(13.8)  | 84(7.5)   |
|          | 아니오, 전혀      | 24(2.1)    | 17(1.5)   |
| 생활시간 만족도 | 만족           | 322(28.7)  | 329(29.3) |
|          | 보통           | 609(54.2)  | 591(52.6) |
|          | 불만족          | 192(17.1)  | 203(18.1) |

2) 분석대상

위와 같은 추출방법을 통해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평일에 조사된 맞벌이 부부 1123쌍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맞벌이 부부이며, 농가부부는 제외되었다.

우선 연령을 보면, 맞벌이 남편(48%)과 맞벌이 부인(47.5%)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남편의 경우 고졸과 대졸이 많은 것에 비해, 부인은 고졸이 54.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는 18.1%, 미취학자녀가 없는 맞벌이는 81.9%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역할태도는 남성의 59%, 여성의 74.9%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고 있어,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직업을 보면, 맞벌이 남편의 경우 기능직 종사자가 많은 반면, 맞벌이 부인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많았다. 직장지위는 남편과 부인 모두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편의 경우 자영자(23.5%)가 많은 것에 비해 부인의 경우 자영자(14.1%)와 무급가족종사자(13.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월평균소득은 남편의 경우 100-200만원 집단과 200-300만원 집단이 많은 반면 부인은 100만원 미만 집단이 48.9%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인의 소득이 남편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휴무일수는 남편과 부인 모두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쉬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부족감은 남편보다 부인이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고,

생활시간만족도는 남편과 부인 모두 만족하는 응답자가 불만족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IV. 연구결과

1.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

1) 맞벌이 남편의 일-생활 유형

맞벌이 남편의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유형1은 취업노동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높고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평균의 1/2정도로 낮은 집단으로, 전체 응답자 중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취업노동에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과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이를 ‘취업집중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2는 취업노동시간이 평균보다 조금 적고 여가시간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응답자 중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의 맞벌이 남편은 평균치 정도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절대적인 시간량이 매우 적어 이를 ‘취업·여가병행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3은 유형2와 비교할 경우 점수부호는 같지만, 배분하는 시간량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유

<표 2> 맞벌이 남편의 일-생활 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점수

(단위:시간:분)

| 유형 | 시간(평균)<br>빈도수(%) | 취업노동시간<br>(465.71) | 가사노동시간<br>(26.30) | 여가시간<br>(193.87) | 점수부호  |
|----|------------------|--------------------|-------------------|------------------|-------|
| 1  | 345(31%)         | 607.83             | 16.38             | 108.67           | + - - |
| 2  | 649(58%)         | 435.61             | 27.44             | 202.79           | - + + |
| 3  | 129(11%)         | 237.05             | 47.05             | 376.90           | - + + |

형2의 노동시간이 평균보다 적고 여가시간이 평균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 유형3은 취업노동시간이 평균의 2분의 1정도로 낮고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평균의 2배 정도로 높은 집단으로, 전체 응답자 중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은 취업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고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으로 많아, 이를 ‘가사·여가병행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약해보면 맞벌이 남편 중 절반이상인 58%는 취업노동과 여가를 병행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31%는 취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나머지 11%는 취업노동시간이 적고 가사노동과 여가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맞벌이 부인의 일-생활 유형

맞벌이 부인의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유형1은 취업노동시간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전체 응답자 중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은 취업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가사와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취업집중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2는 취업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평균보다 조금 낮고, 가사노동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집단으로, 전체 응답자 중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은 취업노동에 하루 5시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에도 하루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취업·가사병행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3은 취업노동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낮고, 가사노동시간은 평균보다 높고 여가시간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집단으로, 전체 응답자 중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은 취업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과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가사·여가병행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맞벌이 부인 중 54%는 취업노동에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45%는 가사노동에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16%는 여가에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맞벌이 남편의 유형과 비교해 보면 남편은 취업·여가병행형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맞벌이 부인은 취업집중형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일정시간을 취업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

위에서 분석한 맞벌이 남편의 일-생활 유형과 부인의 일-생활 유형을 조합해서 부부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9개의 부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3> 맞벌이 부인의 일-생활 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점수

(단위:시간:분)

| 유형 | 시간(평균)   | 취업노동시간<br>(395.04) | 가사노동시간<br>(174.12) | 여가시간<br>(149.96) | 점수부호  |
|----|----------|--------------------|--------------------|------------------|-------|
|    | 빈도수(%)   |                    |                    |                  |       |
| 1  | 612(54%) | 489.26             | 117.47             | 119.58           | + - - |
| 2  | 331(29%) | 328.73             | 253.20             | 128.58           | - + - |
| 3  | 180(16%) | 196.61             | 221.33             | 292.61           | - + + |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 중 21유형(남편취업·여가병행형-부인취업집중형)의 비율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 중 남편은 취업노동과 여가를 병행하는 생활을 하고 부인은 취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11유형(남편취업집중형-부인취업집중형)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다. 남편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취업노동에 사용하고 부인도 취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이다.

그 다음으로 22유형(남편취업·여가병행형-부인취업·가사병행형)과 23유형(남편취업·여가병행형-부인가사·여가병행형), 12유형(남편취업집중형-부인취업·가사병행형) 순으로 16.8%, 9.1%,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유형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나, 남편은 취업과 여가를 병행하는 생활을 하고 부인은 비교적 취업노동시간이 적은 생활을 하는 맞벌이 형태이다.

반면 31유형(남편가사·여가병행형-부인취업집중형), 13유형(남편취업집중형-부인가사·여가병행형), 32유형(남편가사·여가병행형-부인취업·가사병행형), 33유형(남편가사·여가병행형-부인가사·여가병행형)은 모두 합쳐도 10%가 조금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맞벌이 부부 중 남편과 부인 모두 취업노동시간이 적은 생활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극히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 2.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 특징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부 유형 중 빈도수가 높은 5개의 유형(21유형, 11유형, 22유형, 23유형, 12유형)을 추출하여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로 남편관련변수와 부인관련변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 남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표 5>와 같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자녀유무, 성역할태도, 직업, 휴무일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의 대다수는 21유형(80.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22.5%)의 맞벌이 남편은 여가시간이 비교적 많은 22유형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12유형(15.9%)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의 맞벌이 남편은 유형별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에 비해 50대의 맞벌이 남편은 23유형(13.9%)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

(단위:명(%))

| 남편유형 \ 부인유형   | 남편유형       |               |               |
|---------------|------------|---------------|---------------|
|               | 1<br>취업집중형 | 2<br>취업·여가병행형 | 3<br>가사·여가병행형 |
| 1<br>취업집중형    | 199(17.7)  | 358(31.9)     | 55(4.9)       |
| 2<br>취업·가사병행형 | 101(9.0)   | 189(16.8)     | 41(3.7)       |
| 3<br>가사·여가병행형 | 45(4.0)    | 102(9.1)      | 33(2.9)       |

〈표 5〉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 남편의 특징

| 변수           | 구분          | (단위:명(%), 평균) |           |           |           |           | 전체       | X <sup>2</sup> /F |
|--------------|-------------|---------------|-----------|-----------|-----------|-----------|----------|-------------------|
|              |             | 21            | 11        | 22        | 23        | 12        |          |                   |
| 연령           | 20-29       | 12(80.0)      | 2(13.3)   | 0(0.0)    | 1(6.7)    | 0(0.0)    | 15(100)  | 40.309***         |
|              | 30-39       | 81(35.7)      | 42(18.5)  | 51(22.5)  | 17(7.5)   | 36(15.9)  | 227(100) |                   |
|              | 40-49       | 162(35.5)     | 100(21.9) | 98(11.4)  | 44(9.6)   | 52(11.4)  | 456(100) |                   |
|              | 50-59       | 103(41.0)     | 55(21.9)  | 40(15.9)  | 40(15.9)  | 13(5.2)   | 251(100) |                   |
| 교육 수준        | 중졸이하        | 38(33.6)      | 39(34.5)  | 14(12.4)  | 17(15.0)  | 5(4.4)    | 113(100) | 28.366**          |
|              | 고졸이하        | 165(37.2)     | 86(19.4)  | 97(21.9)  | 44(9.9)   | 51(11.5)  | 443(100) |                   |
|              | 대졸이하        | 138(39.4)     | 67(19.1)  | 69(19.7)  | 33(9.4)   | 43(12.3)  | 350(100) |                   |
|              | 대학원이상       | 17(39.5)      | 7(16.3)   | 9(20.9)   | 8(18.6)   | 2(4.7)    | 43(100)  |                   |
| 미취학자녀 유무     | 유미취학자녀      | 54(30.3)      | 26(14.6)  | 56(31.5)  | 14(7.9)   | 28(15.7)  | 178(100) | 29.085***         |
|              | 무미취학자녀      | 304(39.4)     | 173(22.4) | 133(17.3) | 88(11.4)  | 73(9.5)   | 771(100) |                   |
| 성역할태도        | 연속변수        | 2.7 b         | 2.6 ab    | 2.5 ab    | 2.5 a     | 2.5 ab    | 2.6      | 2.402*            |
|              | 관리직         | 19(27.5)      | 14(20.3)  | 20(29.0)  | 9(13.0)   | 7(10.1)   | 69(100)  |                   |
| 직업           | 전문직         | 55(41.7)      | 19(14.4)  | 27(20.5)  | 15(11.4)  | 16(12.1)  | 132(100) | 33.306*           |
|              | 사무직         | 84(46.9)      | 33(18.4)  | 34(19.0)  | 18(10.1)  | 10(5.6)   | 179(100) |                   |
|              | 서비스판매직      | 55(34.2)      | 39(24.2)  | 34(21.1)  | 17(10.6)  | 16(9.9)   | 161(100) |                   |
|              | 기능직         | 118(35.9)     | 70(21.3)  | 66(20.1)  | 30(9.1)   | 45(13.7)  | 329(100) |                   |
| 직장에서<br>의 지위 | 단순노무/기타     | 27(34.2)      | 24(30.4)  | 8(10.1)   | 13(16.5)  | 7(8.9)    | 79(100)  | 17.518            |
|              | 임금근로자       | 265(40.0)     | 143(21.6) | 119(18.0) | 70(10.6)  | 65(9.8)   | 662(100) |                   |
|              | 고용주         | 30(34.5)      | 14(16.1)  | 25(28.7)  | 6(6.9)    | 12(13.8)  | 87(100)  |                   |
|              | 자영자         | 60(30.6)      | 42(21.4)  | 44(22.4)  | 26(13.3)  | 24(12.2)  | 196(100) |                   |
| 개인<br>월평균소득  | 무급가족종사자     | 3(75.0)       | 0(0.0)    | 1(25.0)   | 0(0.0)    | 0(0.0)    | 4(100)   | 22.825            |
|              | 100만원미만     | 27(49.1)      | 7(12.7)   | 9(16.4)   | 10(18.2)  | 2(3.6)    | 55(100)  |                   |
|              | 100-200만원미만 | 112(36.4)     | 80(26.0)  | 53(17.2)  | 27(8.8)   | 36(11.7)  | 308(100) |                   |
|              | 200-300만원미만 | 123(36.9)     | 58(17.4)  | 77(23.1)  | 40(12.0)  | 35(10.5)  | 333(100) |                   |
| 휴무일수         | 300-400만원미만 | 58(38.9)      | 34(22.8)  | 25(16.8)  | 14(9.4)   | 18(12.1)  | 149(100) | 25.295*           |
|              | 400만원이상     | 38(36.5)      | 20(19.2)  | 25(24.0)  | 11(10.6)  | 10(9.6)   | 104(100) |                   |
|              | 1주에 하루      | 145(35.6)     | 82(20.1)  | 86(21.1)  | 49(12.0)  | 45(11.1)  | 407(100) |                   |
|              | 1주에 이틀      | 140(46.2)     | 55(18.2)  | 53(17.5)  | 29(9.6)   | 26(8.6)   | 303(100) |                   |
| 합계           | 2주에 하루      | 9(24.3)       | 10(27.0)  | 7(18.9)   | 2(5.4)    | 9(24.3)   | 37(100)  | 202(100)          |
|              | 수시로 쉽/기타    | 64(31.7)      | 52(25.7)  | 43(21.3)  | 22(10.9)  | 21(10.4)  | 202(100) |                   |
| 합계           |             | 358(37.7)     | 199(21.0) | 189(19.9) | 102(10.7) | 101(10.6) | 949(100) |                   |

\* p<.05, \*\* p<.01, \*\*\* p<.001

교육수준을 보면 중졸이하의 맞벌이 남편은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11유형(34.5%)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대졸이하(39.4%)는 여가시간이 비교적 많은 21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학원이상도 21유형(39.5%), 23유형(18.6%)에서 다른 교육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맞벌이 남편의 경우 평균치 정도의 취업노동을 하고 일정 정도의 시간을 여가에 사용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편(31.5%)은 여가시간이 비교적 많은 22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12유형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역할태도는 21유형이 23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아 21유형의 남편이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즉, 부인의 유형은 차이를 보이거나 남편의 유형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부인의 취업노동, 가사노동, 여가에의 시간배분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특징을 보면 관리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남편의 경우 22유형(29.0%)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에 반해, 전문직(41.7%)과 사무직(46.9%)은 21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중 사무직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능직(13.7%)에 종사하는 맞벌이 남편은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12유형에서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단순노무/기타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남편은 11유형(30.4%)과 23유형(16.5%)에서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휴무일수를 보면 1주에 이틀 쉬는 집단(46.2%)은 21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주에 하루 쉬는 집단(27.0%)은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11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경우 휴무일수가 적게 나타났다. 1주에 하루 쉬는 집단과 수시로 쉬는 집단은 유형별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 부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표 6>과 같다.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 맞벌이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직업관련변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을 보면, 20대 맞벌이 부인은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21유형(52.2%)에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30대 맞벌이 부인은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22유형(25.6%)과 12유형(15.0%)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30대 맞벌이 부인은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대의 맞벌이 부인은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11유형(23.1%)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많은 23유형(19.6%)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졸이하(15.0%)의 맞벌이 부인은 취업노동시간이 적은 23유형에서 다른 교육수준집단에 비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맞벌이 부인(22.7%)은 22유형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졸이하의 맞벌이 부인은 12유형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대학원이상의 맞벌이 부인은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21유형(44.4%)과 11유형(33.3%)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교육수준이 높은 맞벌이 부인의 경우 취업노동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역할태도는 21유형, 11유형, 12유형이 23유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맞벌이 부인이 취업노동시간이 적은 맞벌이 부인보다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취업노동과 여가를 병행하는 맞벌이 남편이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였던 것에 반해, 맞벌이 부인은 자신의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경우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였다.

〈표 6〉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 유형별 부인의 특징

| 변수           | 구분          | (단위: 명(%), 평균) |           |           |           |          | 전체       | X <sup>2</sup> /F |
|--------------|-------------|----------------|-----------|-----------|-----------|----------|----------|-------------------|
|              |             | 21             | 11        | 22        | 23        | 12       |          |                   |
| 연령           | 20-29       | 24(52.2)       | 10(21.7)  | 5(10.9)   | 2(4.3)    | 5(10.9)  | 46(100)  | 41.234***         |
|              | 30-39       | 103(32.9)      | 58(18.5)  | 80(25.6)  | 25(8.0)   | 47(15.0) | 313(100) |                   |
|              | 40-49       | 177(39.6)      | 98(21.9)  | 82(18.3)  | 47(10.5)  | 43(9.6)  | 447(100) |                   |
| 교육 수준        | 50-59       | 54(37.8)       | 33(23.1)  | 22(15.4)  | 28(19.6)  | 6(4.2)   | 143(100) | 25.702*           |
|              | 중졸이하        | 55(37.4)       | 44(29.9)  | 17(11.6)  | 22(15.0)  | 9(6.1)   | 147(100) |                   |
|              | 고졸이하        | 195(37.5)      | 99(19.0)  | 118(22.7) | 47(9.0)   | 61(11.7) | 520(100) |                   |
| 미취학자녀 유무     | 대출이하 대학원이상  | 100(37.9)      | 50(18.9)  | 53(20.1)  | 31(11.7)  | 30(11.4) | 264(100) | 29.085***         |
|              | 대출이하 대학원이상  | 8(44.4)        | 6(33.3)   | 1(5.6)    | 2(11.1)   | 1(5.6)   | 18(100)  |                   |
| 성인할테도        | 유미취학자녀      | 54(30.3)       | 26(14.6)  | 56(31.5)  | 14(7.9)   | 28(15.7) | 178(100) | 4.298**           |
|              | 무미취학자녀      | 304(39.4)      | 173(22.4) | 133(17.3) | 88(11.4)  | 73(9.5)  | 771(100) |                   |
| 직업           | 연속면수        | 2.9 b          | 2.9 b     | 2.8 ab    | 2.7 a     | 2.9 b    | 2.9      | 42.957**          |
|              | 관리직         | 7(77.8)        | 2(22.2)   | 0(0.0)    | 0(0.0)    | 0(0.0)   | 9(100)   |                   |
|              | 전문직         | 75(42.1)       | 25(14.0)  | 34(19.1)  | 20(11.2)  | 24(13.5) | 178(100) |                   |
|              | 사무직         | 67(38.7)       | 34(19.7)  | 41(23.7)  | 13(7.5)   | 18(10.4) | 173(100) |                   |
|              | 서비스판매직      | 118(34.5)      | 73(21.3)  | 73(21.3)  | 38(11.1)  | 40(11.7) | 342(100) |                   |
|              | 기능직         | 46(45.5)       | 30(29.7)  | 11(10.9)  | 5(5.0)    | 9(8.9)   | 101(100) |                   |
| 직장에서<br>의 지위 | 단순노무/기타     | 45(30.8)       | 35(24.0)  | 30(20.5)  | 26(17.8)  | 120(6.8) | 146(100) | 45.770***         |
|              | 임금근로자       | 273(41.2)      | 146(22.0) | 124(18.7) | 49(7.4)   | 71(10.7) | 663(100) |                   |
|              | 고용주         | 19(47.5)       | 7(17.5)   | 5(12.5)   | 5(12.5)   | 4(10.0)  | 40(100)  |                   |
|              | 자영자         | 36(28.1)       | 20(15.6)  | 37(28.9)  | 23(18.0)  | 12(9.4)  | 128(100) |                   |
|              | 무급가족종사자     | 30(25.4)       | 26(22.0)  | 23(19.5)  | 25(21.2)  | 14(11.9) | 118(100) |                   |
|              | 100만원미만     | 125(28.2)      | 85(19.2)  | 102(23.0) | 74(16.7)  | 57(12.9) | 443(100) |                   |
| 개인<br>월평균소득  | 100-200만원미만 | 155(45.6)      | 80(23.5)  | 58(17.1)  | 17(5.0)   | 30(8.8)  | 340(100) | 63.792***         |
|              | 200-300만원미만 | 45(45.9)       | 19(19.4)  | 19(19.4)  | 6(6.1)    | 9(9.2)   | 98(100)  |                   |
|              | 300-400만원미만 | 25(53.2)       | 8(17.0)   | 7(14.9)   | 2(4.3)    | 5(10.6)  | 47(100)  |                   |
|              | 400만원이상     | 8(38.1)        | 7(33.3)   | 3(14.3)   | 3(14.3)   | 0(0.0)   | 21(100)  |                   |
| 휴무일수         | 1주에 하루      | 167(42.1)      | 95(23.9)  | 72(18.1)  | 30(7.6)   | 33(8.3)  | 397(100) | 45.938***         |
|              | 1주에 이틀      | 123(39.7)      | 56(18.1)  | 67(21.6)  | 26(8.4)   | 38(12.3) | 310(100) |                   |
|              | 2주에 하루      | 18(45.0)       | 7(17.5)   | 5(12.5)   | 4(10.0)   | 6(15.0)  | 40(100)  |                   |
|              | 수시로 쉼/기타    | 50(24.8)       | 41(20.3)  | 45(22.3)  | 42(20.8)  | 24(11.9) | 202(100) |                   |
| 합 계          | 358(37.7)   | 199(21.0)      | 189(19.9) | 102(10.7) | 101(10.6) | 949(100) |          |                   |

\* p<.05, \*\* p<.01, \*\*\* p<.001



직업을 보면, 관리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인의 대다수는 21유형(77.8%)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인은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12유형(13.5%)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11유형에서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사무직(23.7%)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인은 22유형에서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판매직은 맞벌이 부인의 직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이나, 유형별 특징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에 비해, 기능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인은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21유형(45.5%)과 11유형(29.7%)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단순노무/기타직(17.8%)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인은 취업노동시간이 적은 23유형에서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지위를 보면, 고용주(47.5%)와 임금근로자(41.2%)는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21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고용주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자(28.9%)의 맞벌이 부인은 22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21.2%)의 맞벌이 부인은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많은 23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1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22유형(23.0%), 23유형(16.7%), 12유형(12.9%)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높은 300-400만원 미만 집단(53.2%)은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21유형에서, 400만원 이상은 11유형(33.3%)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휴무일수를 보면, 1주에 하루 쉬는 맞벌이 부인(23.9%)은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11유형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2주에 하루 쉬는 집단은 21유형과 12유형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에 비해, 수시로 쉬는 맞벌이 부인은 취업노동시간이 적고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22유형(22.3%)과 23유형(20.8%)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 시간부족감과 생활시간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래<표 7>, <표 8>과 같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 시간부족감과 생활시간만족도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부인의 경우 시간부족감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 남편과 부인의 시간부족감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맞벌이 남편의 경우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11유형의 남편이 여가시간이 비교적 많은 21유형과 23유형의 남편 보다 유의하게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

<표 7>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 남편과 부인의 시간부족감

(단위:평균)

| 유형 | 맞벌이 남편 |     | 맞벌이 부인   |    |
|----|--------|-----|----------|----|
| 21 | 3.1    | ab  | 3.5      | c  |
| 11 | 3.3    | c   | 3.4      | bc |
| 22 | 3.2    | abc | 3.3      | b  |
| 23 | 3.1    | a   | 3.1      | a  |
| 12 | 3.3    | bc  | 3.3      | b  |
| 전체 | 3.2    |     | 3.3      |    |
| F  | 3.170* |     | 7.359*** |    |

\* p<.05, \*\* p<.01, \*\*\* p<.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유형의 남편의 취업노동시간이 21유형과 23유형보다 많아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유형과 21유형을 비교해보면 부인의 유형이 취업집중형으로 동일하나 남편의 취업노동시간이 11유형이 21유형보다 많으므로,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데 자신의 취업노동시간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인은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21유형의 부인이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22유형, 23유형, 12유형의 부인보다 유의하게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며, 22유형과 12유형이 23유형보다 유의하게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유형의 부인의 취업노동시간은 22유형, 23유형, 12유형보다 많아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유형의 남편의 유형은 취업·여가병행형으로 22유형과 23유형의 남편과 같은 유형이나, 부인의 시간부족감은 21유형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데 자신의 많은 취업노동시간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2유형과 12유형이 23유형보다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22유형과 12유형의 부인의 취업노동시간이 23유형보다 많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많

은 취업노동시간이 시간부족감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3유형의 남편과 부인 모두 시간부족감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남편은 노동력을 소비하는 일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여가에 일정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인의 경우 노동력을 소비하는 취업노동에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남편이 생계유지를 담당하고 부인이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젠더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로 이 부부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남편과 부인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유형별 남편과 부인의 생활시간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래<표 8>과 같다.

맞벌이 부부유형별 생활시간만족도는 맞벌이 남편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가시간이 비교적 많은 21유형, 22유형, 23유형의 남편이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12유형의 남편보다 유의하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유형, 22유형, 23유형의 남편들의 취업노동시간은 12유형의 취업노동시간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생활시간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유형, 22유형, 23유형의 부인의 유형은

〈표 8〉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 남편과 부인의 생활시간만족도

(단위:평균)

| 유형 | 맞벌이 남편 |    | 맞벌이 부인 |
|----|--------|----|--------|
| 21 | 3.1    | b  | 3.1    |
| 11 | 3.1    | ab | 3.0    |
| 22 | 3.1    | b  | 3.1    |
| 23 | 3.2    | b  | 3.3    |
| 12 | 2.9    | a  | 3.1    |
| 전체 | 3.1    |    | 3.1    |
| F  | 3.359* |    | 2.023  |

\* p<.05, \*\* p<.01, \*\*\* p<.001

모두 상이하나 남편의 유형은 모두 취업여가병행의 생활을 하고 있어 부인의 일-생활 유형은 남편의 생활시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맞벌이 남편이 생활시간에 만족하는데 부인의 일-생활 유형 보다는 자신의 취업노동시간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남편과 부인을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1유형**은 남편의 경우 취업노동과 여가를 병행하는 생활을 하는 반면 부인은 노동력을 소비하는 취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이다. 남편과 부인 모두 연령은 낮고, 교육수준은 높고,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였다. 직업관련 특징은 남편의 경우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많고, 부인은 관리직과 고용주인 경우가 많고 월평균 소득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휴무일수는 남편은 1주에 이틀 쉬는 반면 부인은 1주에 하루 또는 2주에 하루 쉬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맞벌이 남편과 부인은 직장에서의 지위와 취업노동시간이 비슷하고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이 가사노동의 주된 담당자로 맞벌이 생활을 영위하고 부부이다. 이에 21유형의 남편은 생활시간사용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부인은 생활시간 사용에 부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녀가 동일한 시간의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요구나 기대에 따라 시간을 배분하게 된다는 젠더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11유형**은 남편과 부인 모두 노동력을 소비하는 취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부부유형이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연령이 높고 남편의 교육수준은 낮은 반면 부인의 교육수준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직업관련 특징은 남편은 단순노무직이 많은 반면 부인은 기능직이 많고 월평균 소득은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부부는 남편과 부인 모두 노동집약적인 직업의 특징으로 인해 취업노동에의 시간 사용이 가장 많은 부부로, 남편과 부인 모두 취업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가사노동과 여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부부간의 시간대체도 용이하지 않는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유형**의 남편은 취업노동과 여가를 병행하는 생활을 하는 반면 부인은 취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이다. 남편과 부인 모두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의 특징을 보였으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특징을 보였다. 직업관련 특징을 보면 남편은 관리직 종사자가 많은 반면 부인은 사무직 종사자가 많고 자영자가 많으며 월평균 소득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의 부부는 연령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어 가사노동에의 요구가 높은 맞벌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의 취업노동시간이 평균치 정도이고 여가시간 사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아 부부간의 역할분담은 여전히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을 따라 맞벌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유형**의 남편은 취업노동과 여가를 병행하는 생활하는 반면 부인은 취업노동시간이 적고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가사와 여가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이다. 남편과 부인 모두 연령이 높고 남편의 교육수준은 높은 반면 부인의 교육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 직업관련 특징은 부부 모두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많으며, 부인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도 많고 소득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휴무일수는 남편의 경우 1주에 하루 쉬는 특징을 보인 반면 부인은 수시로 쉬는 특징을 보였다. 이 유형의 남편과 부인 모두 시간부족감을 가장 덜 느끼며, 23유형의 남편의 경우 생활시간에도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부인 모두 취업노동시간이 적고 여가

시간이 많으며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로 볼 수 있다.

**12유형**의 남편은 취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부인은 취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부부유형이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연령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특징을 보였다. 직업관련 특징은 남편의 경우 기능직 종사자가 많은 반면, 부인은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소득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휴무일수는 부부 모두 2주에 하루 쉬는 특징을 보였다. 이 유형은 미취학자녀가 있어 가사노동에의 요구가 높은 맞벌이로, 남편이 하루 10시간 정도를 취업노동에 사용하고 부인의 직업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노동에 적은 시간을 보내며 맞벌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부이다. 즉, 남편은 장시간노동을 하고 부인은 자신의 취업노동시간 축소를 통해 자녀돌봄의 주된 양육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로 볼 수 있다. 이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 하에서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남성은 취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인은 가사노동에 많이 보내게 된다는 베커의 이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더라도 각 가정에서 남편의 일-생활 유형과 부인의 일-생활 유형의 조합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직업과 관련된 특징도 각 가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노동력을 소비하는 취업노동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사노동과 여가에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은 상이하였으며, 각 가정마다 맞벌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방식도 각 가정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 론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다양한 일-생활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맞벌이 남편은 취업집중형, 취업·여가병행형, 가사·여가병행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취업·여가병행형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맞벌이 부인의 일-생활을 유형화 해 본 결과 취업집중형, 취업·가사병행형, 가사·여가병행형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집중형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맞벌이 남편의 유형과 맞벌이 부인의 유형의 조합을 분석해 본 결과, 21유형(남편취업·여가병행형-부인취업집중형)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1유형(남편취업집중형-부인취업집중형), 22유형(남편취업·여가병행형-부인취업·가사병행형), 23유형(남편취업·여가병행형-부인가사·여가병행형), 12유형(남편취업집중형-부인취업·가사병행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노동시간이 많은 11유형의 남편과 21유형의 부인이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며, 반면 23유형의 남편과 부인 모두 시간부족감을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만족도는 취업노동시간이 많지 않고 여가시간이 많은 21유형, 22유형, 23유형의 남편이 생활시간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맞벌이를 하고 있는 남편과 부인의 시간 배분이 서로 상이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사회 노동시장의 구조가 남성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나타난 일면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우리사회 노동시장에 여성이 진입하기 어려우며, 진입하더라도 직업적 위치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는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성이 취업노

동시장에서 장시간노동을 통해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여성은 취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거나 취업노동시간을 줄이는 전략으로 맞벌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부부의 유형을 보면 부인의 취업노동시간 조절을 통해 돌봄의 요구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가정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수행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인의 소득수준이 남편보다 낮다는 실정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안정한 지위와 가정 내 역할분담의 지체현상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맞벌이 가정에서 특히 돌봄의 요구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남편의 장시간 시장노동과 부인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으로 맞벌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보편적인 모습은 취업·여가병행형인 남편과 취업집중형인 부인으로, 이는 맞벌이 부인의 경우 일정시간을 취업노동에 사용하고 있는 부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맞벌이 부인의 경우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취업이 남편의 1차적 생계유지 책임에 대한 보조적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으나, 취업노동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인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점차적인 변화를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의 역할분담은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 남편과 부인의 역할변화에 따른 생활시간의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유형 중 남편과 부인 모두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자신의 많은 취업노동시간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 여전히 생계유지의 1

차적 책임자로서 취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인의 경우 많은 취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으로 인해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생활시간 및 직업특징보다는 자신의 많은 취업노동시간이 균형 있는 일과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일하는 남성과 여성간의 보다 공평한 생활시간 배분 나아가 일-생활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및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취업노동은 자유재량 수준이 낮은 생활영역으로 취업노동시장에서 많은 시간사용은 자유재량 수준이 높은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조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취업노동시장에서의 노동시간 감소와 유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취업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취업노동시간에 자율적 재량이 일정정도 주어질 때 사람들은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보다 용이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의 균형,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우리사회는 일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야근 및 회식 등 근무시간 외 근무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직장에서는 일과 생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균형 있는 일과 생활을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직장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더불어 직장 문화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 및 부부간의 역할균형을 이루며,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으로의 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동시장은 남성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젠더차이를 보이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가정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즉, 남녀의 노동시장에서의 질적 차이의 개선을 통해 맞벌이 남편과 부인이 맞벌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 필요한 변화는 맞벌이 남편과 부인의 변화된 역할의 재조정 및 이에 따른 생활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의 관점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생활영역의 남녀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개인의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부부간 역할분담에 있어 양적·질적 평등이 필요하다. 즉, 맞벌이 남편과 부인 모두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확보와 더불어 부부간의 역할균형을 위해 맞벌이 부인의 경우 취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이중부담의 완화와 여가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맞벌이 남편의 경우 취업노동시간의 감소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남녀 모두에게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의 관점에서 일-가정을 넘어 여가를 포함한 일-생활 균형에 대한 교육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사노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맞벌이 남편과 부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부간의 역할분담의 균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일-생활 균

형정책으로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은 일과 가정에 국한되어 전반적인 생활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그 범위를 넓혀 여가를 포함한 생활의 전반을 다루는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여기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 전체를 조화롭게 양립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좋은 노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생활 균형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의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는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특정시기에만 요구되는 문제가 아니다. 즉,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는 일과 가정을 넘어선 모든 사람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자녀가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범위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으로 세분화 될 필요가 있으며,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생활 균형의 주관적인 균형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시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각 생활영역에 사용하는 활동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주관적 균형의 문제도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일-생활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읽어내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균형감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못했다. 일-생활 균형은 생애주기의 관점을 강조한 개념으로 생애주기에 초점을 두고 일-생활의 실태가 어떠

한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일-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탐구하고 정책적 제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학중·유계숙(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 : 억제 및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지, 17(3), 187-219.
- 2) 김미경(2008). 경쟁적 노동사회의 소비적 여가의 인간화. 한·독 사회과학논총, 18(1), 137-157.
- 3) 김수정·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 4) 김진옥(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51-72.
- 5) \_\_\_\_ (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5, 197-220.
- 6) 김효정(2001).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83-95.
- 7)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8) 서중수(2010). 일-생활균형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대구지역 비영리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9) 성균관대학교(2005).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결과.
- 10) 성지미(2006). 맞벌이 여성의 시간 배분 결정 요인. 노동정책연구, 6(4), 1-29.
- 11) 손문금(2003). 맞벌이 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의 성격. 통계연구, 8(2), 23-58.
- 12) \_\_\_\_ (2005a). 맞벌이 부부 여성의 이중부담과 시간의 특성 :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

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_\_\_\_ (2005b).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5, 239-287.
- 14) \_\_\_\_ (2010). 저출산 시대의 도시양육지원정책. 도시문제, 4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15)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와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_\_\_\_ (2000).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실태.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2(1), 103-115.
- 17) \_\_\_\_ (2012). 일과 생활의 조화 : 정책에서 생활로.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 18) 유계숙(2010).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69.
- 19) 유성용(2008). 측정방법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 : 자기기입식 질문법과 시간일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1), 99-125.
- 20) 유소이·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 21)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22) 이기영·김외숙(2002).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23) 이기영·조영희·송혜림·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교문사.
- 24) 이기영·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3), 11-26.
- 25) 이명신(2001).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권력구조와 가사분담. 사회과학연구, 19(1), 43-78
- 26) 이승미(1996).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과 영

- 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63-75.
- 27) 이연숙 · 이기영 · 김외숙 · 조희금 · 주인숙 · 이선형 · Zick, Cathleen, D. · Lee Yoon G.(2002).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 28) 이종희 · 이연숙(2002).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 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65-177.
- 29) 이현아 · 이승미(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81-96.
- 30) 장영철 · 이명신 · 김은정(2009). 일과 삶의 균형 : 유한킴벌리 사례. 창조와 혁신, 2(2), 217-254.
- 31) 장혜경 · 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 분담과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32) 조성은 · 문숙재(1998).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 -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6(10), 35-48.
- 33) 조혜정(1998).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과 남성2. 또 하나의 문화.
- 34)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 여성의 시간사용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35) \_\_\_\_\_(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2), 143-156.
- 36) 조희금 · 이기영 · 이연숙 · 김외숙(2000). 한일 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6, 1-14.
- 37) 채로 ·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38) 크리스스(2007). 노동을 거부하라. 이후.
- 39) 통계청(2014).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
- 40)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41) \_\_\_\_\_(1995).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 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42) 한국노동연구원(2009). OECD 회원국의 여가 시간과 삶의 질. 월간노동리뷰. 8월호, 69-71
- 43) 한영선 · 윤소영(2009). 미취학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2), 81-95.
- 44) 한지수(2003). 부부의 시간사용유형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5)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 46) 허수연(2008). 맞벌이 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47) Becker, G.(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48) Bittman M, England P, Folbre N, Sayer L, Matheson G.(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 186-14.
- 49) Craig and Sawrikar(2009). Work and Family : how dose the (gender) balance change as children grow?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16(6), 684-709.
- 50) Drago, Robert(2009). The parenting of infants : A Time-Use Study. *Monthly Labor Review October*, 33-43.
- 51) Elias, N.(1992). Time: An Essay. Oxford: Blackwell.
- 52) OECD(2012). OECD Data-Employment-Hours worked. www. oecd. org.
- 53) Gershuny, Jonathan(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 Oxford University Press.
- 54) Greenstein, T. N.(1996). Husbands participation domestic labor :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585-595.  
55) Voydanoff(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y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3), 749-761.

- 투 고 일 : 2015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5년 4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5월 21일